



마음에 새겨 그린 수행공간

《새벽산사에 가보세요》 펴낸 미영순씨

뿌연 안개에 휩싸인 새벽 산사에는
목탁소리와 풍경소리가 인간의 번뇌를
씻어내리고 있다. 이 미명의 새벽 산사를
오르는 이는 필시 이 세상에서 상처받은
사람이거나 스스로 지은 속세의
인연으로부터 가슴아픈 사연을 간직한
사람일 것이다.

《새벽산사에 가보세요》(시공사)를 펴낸
미영순씨(50)도 누구 못지 않게 많은
곡절의 사연을 간직한 사람 중의 하나이다.
현재 중국 흑룡강대 객원교수로서
한·중관계를 연구하는 그녀는 세상을 밝게
보지 못하는 육신의 아픔이 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망막염으로 6개월을 캄캄한
어둠 속에서 보내야 했다.

방통통신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후
국민대 정치학과에 편입하고 대만에서
정치학 석사·박사학위를 따냈다. 시력을
회복하기 위해 '데포메드폴'이라는 약을
흰 눈자위에 주사맞는 처참한 고통을
견뎌야 하기도 했다. 지금도 두터운 안경에
비친 세상은 새벽안개처럼 흐리기만 하다.

“배낭 속에 쌍안경을 챙겨 넣고 훌쩍
먼 길 떠나는 버릇이 있습니다. 간밤에
달이 고와서, 아침에 눈을 뜨니 백설이
난분분하여 등 이유도 가지가지입니다. 그냥
구름처럼 휘적휘적 걷다보면 제 앞길에
많은 이들의 세상살이가 펼쳐집니다. 그
끝엔 늘 절이 있게 마련입니다.”

길의 끝자락에서 만나는 산사를 육체의
눈이 아닌 마음의 시선으로 포착한 이
책에는 30여 곳의 사찰이 담겨 있다.
상왕산 개심사, 조계산 송광사, 금정산
범어사, 월출산 도갑사, 오대산 상원사,
지리산 화엄사 …….

사물의 형태에 마음을 빼앗겨버리는
세속인과 달리 그녀는 촘촘한 마음의 그물을
얹어서 사물을 온몸으로 느낀다. 그리하여
금빛 눈부신 부처님을 보지는 못하지만
법당 기둥을 다듬는 목수의 땀내를 맡고,
탑을 조각하는 석공의 망치 소리를 듣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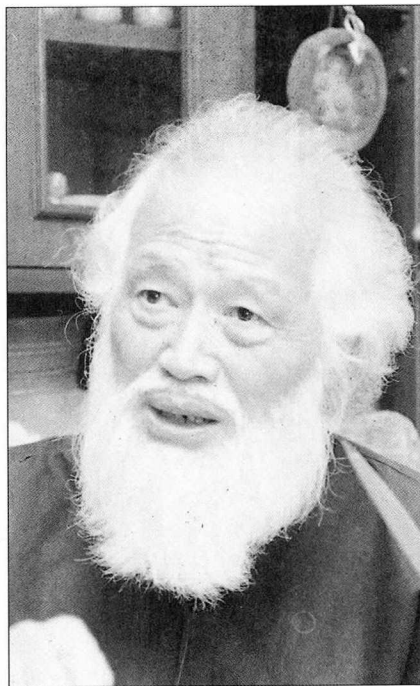
“우리나라의 사찰은 박제된 문화재가
아닙니다. 현대인들이 여전히 활용하는 살아
있는 공간이자 역사 속에서 이어지는
인간의 발자취가 담겨 있는 곳이지요.”

왜 하필 절을 찾게 되었을까. 자정기의
(自淨其意), 스스로 그 뜻을 맑게 하기
위해서다. 마음에 낀 녹을 닦아내어 세상과
사물을 명경처럼 투명하게 비쳐볼 수 있을
때 사찰은 수행의 공간으로 변한다.

그녀가 지향하는 최종목표는
회향(廻向)이다. 많은 이들의 세상살이를
지혜로 투과하여 자신에게로 되돌아오게
하는 것. 자신이 없는 세상 속으로 자신을
주우려 휘적휘적 걸어가게 하는 것이 그녀의
여행이자 삶의 과정이다.

“앞으로 우리 부모님들의 이야기이자
나라없는 백성으로서 살다가신 지식인들의
삶을 글로 쓰고 싶습니다.”

빛을 잃어버린 우리 현대인들에게 장엄한
화엄세계를 보여주는 그녀의 작업은 계속
이어질 것이다. — 박천홍 기자



민족의 정체성 찾는 풍류 시인

《문화재, 아아 우리 문화재》 펴낸
박희진씨

학대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한다.

‘자연과 문명의 균형과 조화’는 인간을
살리는 방법이라는 것.

“사실 우리 문화재와 역사적인 인물들의
행적에서 불교와 유교, 풍류도가 섞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몇 년전 교직에서 물러나 마음껏 시를
쓰고 있는 박희진씨는 한해에 150여편의
시를 쓰기도 했다. 그는 사람들 만나는 것을
피하고 숨어살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시를 대했으면 하고 바란다.

“인간인 나는 중요하지 않아요. 오로지
시가 나의 정수이고 나의 모든 것입니다.”

박희진씨는 “시는 나의 종교요, 내 가슴은
그 사원”이라며 더할 수 없는 열정으로
시심을 불태운다. 그는 살같이 지나가는
시간이 안타깝다. 읽고 싶은 책을 다 읽고,
보고 싶은 풍광을 다 보고, 쓰고 싶은 시를
다 쓰기에는 인생이 너무나 짧다. 지금
그에게 중요한 것은 자유롭게 사는 것. 이
세상에 왔을 때 아무것도 없었듯이 그는
늘 빈손이다. 그의 시구절처럼 ‘이 몸은
생존에도 보이지 않게 살고’ 죽어서도
조용히 자연과 동화하고자 한다. 그는 최근
수염을 길렀다. 귀찮아서 면도를 안한
것인데, 산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산신령인줄
알고 화들짝 놀란다고 한다. 숨어살기에
조금 지장이 있다. — 마정미 기자

1955년 《문학예술》을 통해 문단에 나온
시인 박희진씨(67)는 그간 17권의 시집을
통해 연애시·사찰시·현대시·4행시·1행시
등 다양한 시 편력을 보여주었다. 그가
최근 펴낸 《문화재, 아아 우리 문화재》
(호형출판)는 사찰을 비롯한 우리
문화유물을 탐방하고 쓴 시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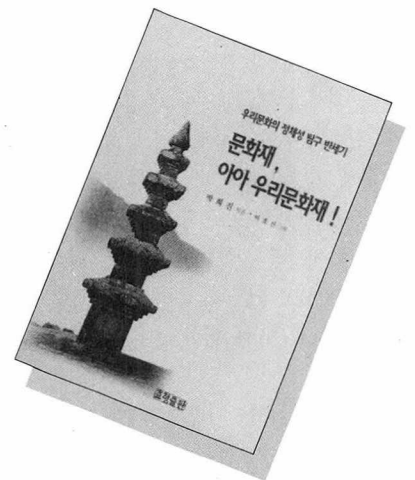
“전통문화에 관심을 갖다 보니 불교유적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문화의 핵심이었던 불교 유적들을 직접
보고 마음으로 접하고 싶어, 전국 사찰을
떠돌며 300여편의 시를 썼지요.”

이 책에는 화가 이호신씨의 사찰
그림이 함께 들어가 있다. 따로따로 가지고
있던 작품을 모았는데도, 두 사람이 매료된
사찰은 묘하게 일치해 시와 그림이
기막히게 어우러지고 있다.

박희진씨는 요즘 풍류도에 심취해 있다.
풍류도(風流道)는 자연과 문명의 슬기로운
균형과 조화, 곧 우리 인간이 천지 자연과
하나가 되어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충분히,
슬기롭고 아름답게 누리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인의 얼, 한국인의 정체성을
탐구하다가 《최치원 문집》에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우리에게는 현묘한 도가
있으니 … 풍류도다’ 라는 것입니다.
단군시대 이래 우리 고유의 문화이자
원종교가 풍류도이고, 이는 바로 국선도·
화랑도입니다. 천지인 삼재는 자연과 사람의
관계이기도 합니다.”

그는 ‘쉽게 말하면 에너지의 흐름이
풍류’ 라고 한다. 종종 인간은 문명의 발달을
위해 자연을 극복해 왔다고 하는데, 자연을
훼손하며 과학기술로 치달는 것은, 문명의
발달을 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고향의 기억 담은 옥중서신

《할배, 왜놈소는 조선소랑 우는 것도
다른강?》 펴낸 안재구씨 딸 소영씨

“모개”라고 놀림받고 활천할배의 옛날 이야기를 가슴줄이며 듣던 아버지의 모습을 생각하면 편지를 읽는 저희들도 웃음이 납니다.”

편지를 쓰던 시기는 범정을 오가던 중이어서 마음도, 몸도 고생스러웠을 때였다. 그래도 한번 흐트러짐 없었던 편지에 감탄을 하기도 했다. 어쩌면 편지쓰기와 추억에 잠기는 일이 아버지에게는 고통을 잠시 잊게 하는 달콤한 시간이었는지도 모를 일이다.

아버지가 79년 남민전 사건으로 처음 수감되었을 때, 소영씨는 초등학생이었다. 한달에 한번씩 받을 수 있던 편지가 어쩌나 자상했던지 아버지가 멀리 있다는 생각을 한번도 못해 봤지만 지금은 다르다. 곧 태어날 첫 손주가 할아버지의 무릎에서 이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에 벌써부터 눈물이 나버린다.

“책을 엮으면서 역사는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모여서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소영씨는 요즘 젊은이들이 이 책을 읽고 더불어 사는 삶의 가치를 생각하고, 어른들의 삶을 이해하게 되길 바랐다.

— 이현주 기자

지난 94년 초여름, 보안법 위반 혐의로 두번째 수감된 안재구씨(65)는 감옥에서 세번째 겨울을 맞는다. 하지만 올 겨울이 남다른 것은 고향의 기억을 담은 《할배, 왜놈소는 조선소랑 우는 것도 다른강?》(돌베개)을 펴냈기 때문이다. 갇힌 몸만 아니라면 당연히 안재구씨를 만났겠지만 부득이 편지의 수신자이면서 책을 묶어낸 그의 딸 소영(31)씨를 만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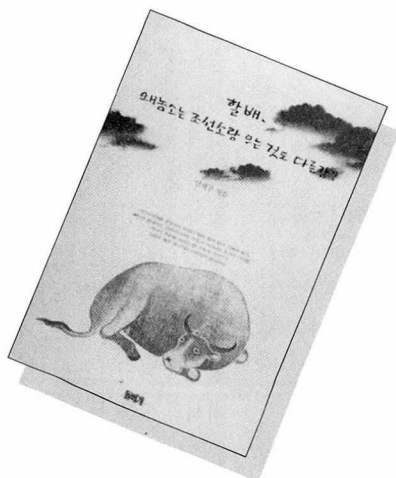
“아버지는 지난 해부터 고향얘기를 담은 편지를 보내오기 시작했습니다.”

70여통의 편지를 모아보니 1930~40년대의 거대한 풍속화가 되었다. 60년도 더 된 일을 세밀하게 그려낸 아버지의 놀라운 기억력에 감탄도 하고, 언제나 ‘어른이었던 아버지’의 어린 시절을 훑어보는 재미도 있었지만 마음이 아팠다. 벌써 ‘옛 일’을 생각할 만큼 아버지가 늙었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20년 넘게 아버지 곁에 있었지만 한번도 들어보지 못한 고향 이야기였습니다.”

일본의 식민지배가 막바지에 이르렀던 30~40년대의 아버지 고향 밀양은 일선동조론과 창씨개명, 전쟁물자 보급을 위한 공출, 근로동원과 강제징집으로 얼룩져 있었다. 설탕이 없어서 할아버지가 썩어 단맛을 낸 암죽을 막내동생에게 먹이고, 누대에 걸쳐 내려온 늦게까지 군수품 징발로 빼앗겼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아이들은 연날리기, 쥐불놀이, 열밭뛰기, 자치기, 고누두기, 논물에서 민물새우와 미꾸라지 잡기, 때뚜기 잡기 등의 놀이를 하며 자랐다.

“아버지는 이야기를 쓰면서 감옥 안에서 혼자서 많이 웃었습니다. ‘울통불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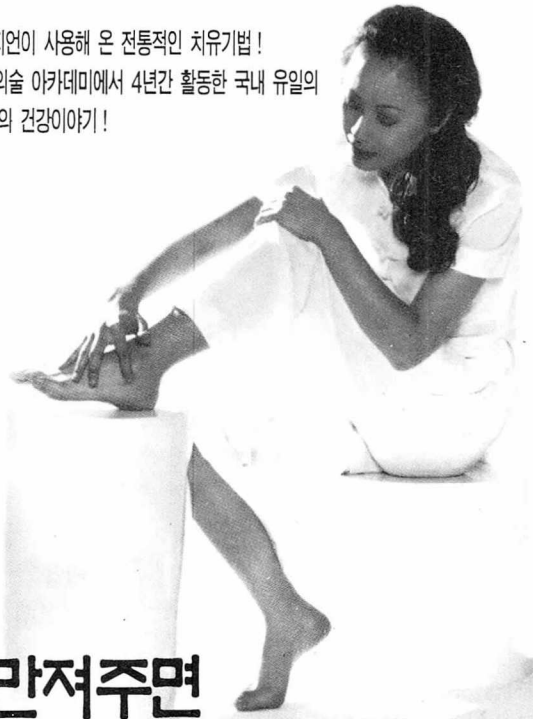


발을 만지는 여자

“발 반사요법 전문가” 정인수 이야기!

정인수 지음

고대 이집트, 중국, 미국 인디언이 사용해 온 전통적인 치유기법!
인도의 요소 라즈니쉬 국제 의학 아카데미에서 4년간 활동한 국내 유일의
“발 반사요법 전문가” 정인수의 건강이야기!



발을 만져주면 남편의 퇴근길이 빨라진다

발 반사요법을 행하면 말이 없어도 사랑의 손길이 발을 통해 가족과 사랑하는 이들에게 퍼져나간다.

- 휴식을 원하는 연인을 위해
- 불면증에 시달리는 현대인들을 위해
- 어머니가 수험생 자녀를 위해
- 과다한 술과 스트레스 쌓인 남편을 위해
- 집안 일에 지친 아내를 위해
- 당뇨병 환자를 위해
- 다이어트로 고민하는 여성들을 위해 (명상과 함께하는 최상의 다이어트법 소개)
- 성기능장애 남·녀를 위해 (“발은 성감대다.”)

교보문고, 을지서적
베스트셀러 진입!
SBS 신바람스튜디오
저자 출연!



오소 명상법의 진수인 “다이나믹 명상”과 “쿤달리니 명상”도 재미있는 일러스트와 함께 소개!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병에 맞는 반사점 찾아보기’ 수록!
저자가 인도 푸나에 있을 당시, 발 반사요법으로 건강과 자신감을 회복한 고객들의 일화들을 소개!

* 정신세계원 (☎ 747-7033) 10월 7일부터 저자 강의

값 7,300 원

세계의 여성들

• 전화: (02)2650-124 • 팩스: 278-6243